

경로당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실태 분석

이정수¹, 오영숙², 은동신^{2*}
¹충남대학교 건축학과, ²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An Analysis on the Status of Barrier Free Design Certifications in Center for Elderly

Jeong-Soo Lee¹, Young-Sook Oh², Dong-Shin Eun^{2*}

¹Department of Architectu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지역노인들의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시설인 경로당의 건축계획적 특성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실태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로당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실태 및 건축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경로당은 대부분 1층 규모로 기본적 기능구성을 지니고 입지에 따라 기능구성의 큰 차이는 없으며, 다만 부지 규모 및 형상, 지형 등으로 접근성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경로당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실태 분석 결과, 위생시설 및 매개시설에서 재시공의 필요성이 많이 있으며, 이는 소규모 건축물 품질관리 부족과 인증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셋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접근성 및 수월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기간 및 예산 등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서 작성 간략화, 인증심사 기간 축소 및 인증수수료 인하 등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verify the status of Barrier Free Design Certification in the center for the elderly. To achieve these purposes,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center for elderly and the status of Barrier Free Design Certification was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functional composition of centers for the elderly are similar regardless of the location, but the area and shape of the plot are very different according to the location. (2) According to an analysis on the status of Barrier Free Design Certification in centers for elderly, the sanitation and intermediate facilities are necessarily considerable adjustment. (3) For the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s of Barrier Free Design Certification in a small building, such as centers for the elderly, they are necessary to simplify the self-assessment documents, minimize the period for judging, and reducing the fees for certification.

Keywords :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Location, Barrier Free Design, Certification, Center for Elderly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7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2017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인구의 13.8%[1]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건강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

“이 논문은 2017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Dong-Shin Eun(Chungnam National Univ.)

Tel: +82-11-286-4543 email: ds.eun2012@gmail.com

Received September 3, 2018

Revised (1st October 11, 2018, 2nd November 15, 2018)

Accepted December 7, 2018

Published December 31, 2018

년기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 여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2018.9.14. 시행)」 제36조에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나누고 있다. 이 가운데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기초적인 노인여가시설이다.

경로당은 2017년 12월 31일 현재 65,604개소[2]로서, 지역노인 공동체의 거점으로서 매우 익숙한 생활환경에 설치된 공동체 커뮤니티공간으로 사회공공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위한 기초여가시설로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이용가능한 시설로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경로당은 최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성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2015.7.29.) 적용을 받고 있다.

실제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현황과 개선과제” 조사자료(NARS 현안분석 Vol.2, 2018년 3월 16일)[3]에 의하면, 건축물 유형별로 인증현황은 노유자시설이 예비인증 307건(17.9%), 본인증 109건(20.0%)으로 교육·연구시설 다음으로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장애인개발원 인증교부현황(2018.7.31.)에 의하면, ‘경로당’은 예비(63곳) 및 본인증(35곳)을 포함하여 5.3%(인증 교부 1,861개소 중 98개소)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4]

특히 2016년 29개소, 2017년 41개소, 2018년 7월 현재 23개소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로당은 공중화장실, 치안센터 등과 함께 연면적 300㎡ 미만(인증수수료 기준 제1구간)[5]의 소규모 건축물이다. 특히 ‘경로당’ 설계 및 시공은 지역여건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진행되며, 그 결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한 시각이 미비한 채 진행되거나 시공과정에서 인증대상임을 인지하는 등 행정적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노인의 접근성 및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로

당 건축 및 BF인증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고령사회 노인복지여가시설인 경로당의 건축계획 및 접근성 개선방안 제시를 위하여 다음의 연구 단계를 거친다. 먼저 첫째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행태특성을 고찰하고, 둘째 경로당 관련 법규 및 설치 기준 등을 확인한다. 이를 기초로 셋째, 경로당의 시설 입지 및 규모, 환경 등 건축계획적 조건을 분석하고, 넷째, 경로당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현황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한다.

2. 경로당과 노인행태

2.1 노인과 고령사회

“노인”의 연령별 기준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대상으로서 “65세 이상의 자”로 정의하고 있고, 고령사회 판단기준을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노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65세를 기준하고 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구성비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광역단체 중 가장 고령화가 진행된 곳은 65세 이상 비율이 21.4%인 전남이며, 다음으로 경북·전북(18.8%), 경남(14.7%), 제주(14.1%)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6]

실제 지역별로 노인이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받은 기관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관 34.8%, 경로당 19.2%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동부 노인의 경우 노인복지관 37.7%, 경로당 10.3%인 반면, 읍면부 노인은 경로당 40.1%, 노인복지관 28.3%로 경로당에 대한 의존도가 지역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7] 즉, 경로당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노인층이 활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임을 알 수 있다.

2.2 노인행동 특성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다. 노년기 여가활동은 신체의 건강, 사회적

접촉의 제공, 노후 삶에 대한 만족감, 자기가치 실현 등 적절한 여가활동은 노후의 고독감 해소 및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인은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의 저하, 사회경제적 역할과 관계변화로 인한 갈등 등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장애와 신체기능의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 즉, 노인여가복지의 가장 기초단위로서 경로당은 건강한 노인활동을 위한 거점이지만, 동시에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장애를 지닌 노인, 특히 자력으로 이동은 가능하나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노인이 접근가능한 공간으로서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Table 1. Behavior Characteristics of Old Persons

Spec.		Behavior Characteristics	
Moving with help			
Moving with tool	Difficulty in moving		
	Moving with tools		
Walking by oneself			

[8]

2.3 경로당 건축기준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의 시설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에 의하면, 이용 정원 20명 이상(읍·면지역의 경우 10명 이상)의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화장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의 설비기준으로서 거실 또는 휴게실을 20㎡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8.2.9.)」 제55조의2

⑦에 의하면, 1.경로당은 “가.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기준에 의해 경로당은 다목적실, 남녀 구분된 거실 및 화장실을 기본형으로 하고 있다.

3. 경로당 건축계획적 특성 분석

3.1 조사개요

조사대상 선정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을 받은 사례 35곳 중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분석가능한 18 곳을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사례는 특·광역시 소재 9곳, 시·군 소재 9곳에 입지하고 있다. 경로당 건축부지는 대부분 주거지역(14곳/77.8%)에 위치하며, 전원형(2곳/11.1%)인 경우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 또는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하는 사례(2곳/11.1%)도 나타나고 있다.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은 택지개발과정에서 제공된 공원의 일부에 건축한 사례이다.

Table 2. Location and Shape of Plot

	Special-Purpose Areas & Districts	Location-Shape
A	Class II general residential area	Urban-Regular
B	Class I general residential area	Suburban-Irregular
C	Class III general residential area	Urban-Regular
D	Class II general residential area	Urban-Regular
E	Class I general residential area	Suburban-Irregular
F	Class I general residential area	Suburban-Irregular
G	Class I general residential area	Suburban-Irregular
H	Green natural area	Suburban-Irregular
I	Class II general residential area	Urban-Regular
J	Class II general residential area	Urban-Irregular
K	Class I exclusive residential area	Urban-Regular
L	Class II general residential area	Urban-Regular
M	Quasi-residential area	Urban-Irregular
N	Green natural area	Suburban-Irregular
O	Class II general residential area	Urban-Irregular
P	Planned control areas	Suburban-Irregular
Q	Conservation and control areas	Suburban-Irregular
R	Green natural area	Urban-Regular

3.2 경로당의 입지 및 부지형상

경로당은 도시의 경우 일정 인구규모별로 균등 설치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어 기존 경로당은 재축하거나 추

가로 증설하는 경우 주거지역내 위치하게 되어 기존 필지의 정형적 형상 및 접근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도시지역 외곽 주변부의 자연취락지역이나 기존의 비정형적 도시필지구조를 지닌 지역이나 읍·면지역에서 마을주민이 제공되는 전답 등을 부지로 경로당을 건축하는 경우 대부분 지형 레벨차이가 있는 비정형의 대지이며, 주접근로는 마을길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Table 3. Location and Shape of Plot

Urban-regular	Urban-irregular	Suburban-irregular
7 (38.9%)	3 (16.7%)	8 (44.8%)

from Daum Map

3.3 경로당 기능구성

최근 ‘경로당’은 가장 기초적인 노인여가시설로서, 점차 복합문화공간으로 다기능공간으로의 기능이 향상[9]되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경로당이 마을단위 중심 커뮤니티공간으로서 여가 및 취미활동 뿐만 아니라 건강, 정보제공 등 지역사회교류서비스의 중심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기능변화에 비하여, 조사대상 경로당은 대부분 “65세 이상 이용정원 20인 이상(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으로서, 거실 또는 휴게실, 화장실, 전기시설을 갖추도록 한 설치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경로당은 출입구와 연계하여 거실 또는 주방이 있고, 양측으로 할아버지 및 할머니 방과 각 방에 화장실을 두는 일반적인 형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각 사례에 따라 할아버지 및 할머니 방을 통합할 수 있도록 가변칸막이를 설치하거나, 탕비실을 할아버지/할머니로 구분하는 경우 등 대지의 형상과 주출입구 형식 등에 따라 변형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남녀구분 없이 경로당을 1개 실로 두고, 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한 사례도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2층에 다목적실 및 회의실을 두는 경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도시-복합), 엘리베이터 없이 2층에 마을창고를 두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1층에 안마의자 등을 배치한 경로당을 두고, 2층에 활동실을 2개소 이상 두어 여가복지시설로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전원-복합)도 나타나고 있다.

Table 4. Plan of Prototype

Location		Urban	Suburban
Standard	1st FL		
	2nd FL		
Complex	1st FL		

from documents for BF design certification

3.4 대지면적 및 연면적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주거지역내에 노인 인구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건축되고 있다. 도시에서는 밀집한 주거지역의 속성상 도시의 필지 구조 내에서 상대적으로 협소한 부지에 최소 기능실을 확보하는 기초적 노인여가복지시설 형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에 전원지역은 읍면의 지역거점 커뮤니티공간으로서 마을중심 또는 인근의 전답에 건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부지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측면이 있다.

실제적으로 기준형(1층/할아버지방, 할머니방, 화장실, 거실 등) 평면을 지니고 있는 경로당의 연면적은 최소 78.83㎡에서 최대 156.57㎡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97.7㎡를 보이고 있다. 읍·면지역에 건축되는 전원형과 도시지역에 건축되는 기준형은 면적이 상대적으로

최소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1층에 기준형의 경로당을 두고, 2층에 다목적실, 회의실, 활동실 등을 두고 있는 복합형 경로당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통해 2층에 접근가능하게 하고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2층에 두는 등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185.15m²에서 최대 324.32m²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기준형의 2배 정도의 연면적을 지니고 있다.

Table 5. Area of Building Site and Total Floor

	Area of Building Site	Total Floor Area	Building-to-Land Ratio	Floor Area Ratio	Floors
A	157.00	92.88	59.15%	59.15%	1
B	159.00	88.39	58.37%	57.03%	1
C	331.00	324.32	49.85%	97.98%	2
D	172.90	101.48	59.97%	58.69%	1
E	247.00	173.21	50.40%	70.13%	2
F	263.00	156.57	59.53%	59.53%	1
G	566.00	103.14	18.38%	18.22%	1
H	180.00	91.88	54.84%	51.04%	1
I	264.00	114.48	43.36%	43.36%	1
J	803.00	93.36	13.35%	11.63%	1
K	236.60	185.15	47.67%	78.25%	2
L	334.00	121.80	36.65%	36.47%	1
M	222.00	75.47	34.00%	34.00%	1
N	407.00	78.83	19.92%	19.37%	1
O	230.00	91.02	42.33%	42.33%	1
P	496.00	80.50	17.74%	17.74%	1
Q	678.00	80.91	16.18%	16.18%	1
R	11,674.10	301.73	1.43%	2.58%	2

from building registration documents

4. 경로당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실태 분석

4.1 개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 위임된 것으로, 경로당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중 2.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 인증의 신청은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가 공사를 완료한 후에 신청하여야 하며,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인증신청 전에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경로당’은 개별시설로서 심사는 건축, 장애인복지

(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3명 이상으로 인증 심사단을 구성하여 평가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건축물)”에 의해, 1.매개시설(1.1 접근로, 1.2장애인 전용주차구역, 1.3 주출입구), 2.내부시설(2.1일반출입문, 2.2복도, 2.3계단, 2.4경사로, 2.5승강기), 3.위생시설(3.1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3.2화장실의 접근, 3.3대변기, 3.4소변기, 3.5세면대 등), 4.안내시설(4.1안내설비, 4.2경보 및 피난설비) 등의 세부항목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제 예비 및 본인증 신청 및 심사는 신청자가 인증신청을 위해 자체평가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신청하면,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및 심의를 거쳐 인증 결과를 공표하기까지 약 40일이 소요되고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을 취득한 ‘경로당’ 18곳의 인증실태를 분석하면, 예비인증 없이 직접 본인증을 신청한 곳은 3곳으로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15곳은 예비 - 본 인증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 예비인증 과정을 거친 15곳의 예비인증 취득 후 본인증 취득까지 소요기간을 분석하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4개월로 평균 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한 ‘경로당’ 18곳을 대상으로 인증심사 과정에서 대두되는 수정 및 보완, 재시공 사항을 분석하면, 주로 위생설비 및 매개시설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례는 예비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의 품질관리가 부족한 경우 등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4.2 매개시설

매개시설은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주출입구까지 이르는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등의 유효폭, 단차, 기울기 등에 관련된 평가항목이다.

주출입구까지 이르는 접근로는 도심형 경로당의 경우 우배수를 위한 도로와 경로당 1층 바닥레벨차이가 주로 문제로 대두되지만, 전원형 경로당은 입지특성상 레벨차이가 있는 경우이거나 부지주변 도로의 레벨차이로 대지경계로부터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이 기준에 부적합한 경사를 지나는 경우, 그리고 높은 기단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 전통적 사고로 인위적 경사가 만들어지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경로당은 주차대수가 산출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없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도심

형은 부지가 매우 협소하여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전원형은 부지여건은 넓지만 마을에서 전동휠체어, 실버카 등 이동보조장치를 사용하여 경로당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주출입구 전면에 우천 시 비를 맞지 않는 전동휠체어 충전공간 및 실버카 보관장소 등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Table 6. Number of Adjustment for Certification

	Intermediate Facilities	Interior Facilities	Sanitation Facilities	Information Facilities	etc
A	1		3		
B			4		
C			2		
D	1		1		
E	4	3	8		
F	2	2	4	1	
G	2	2			
H	3	2	1		
I	3	1	1		
J	14	6	10	3	
K		3	1	1	
L	2	2			1
M	1	2	7	1	
N		1	2		
O	2	3	4		
P	3	4	2		
Q		2	2		
R	4	1	2		
SUM	42(33.1%)	34(26.8%)	44(34.7%)	6(4.6%)	1(0.8%)

Table 7. Intermediate Facilities

Spec	Figures	
1.1.1 Access Road		
	flat access road	unpaved access road
1.1.4 Slope		
	steep access area	steep access road

from documents for BF design certification




4.3 내부시설

경로당은 대부분 1층의 소규모 건축물로서 내부에 계

단, 경사로나 승강기 등은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로 인하여 내부 미서기문의 손잡이 설치위치가 벽체로부터 측면 활동공간(기준 600mm)이 미확보 되어 장애인이 측면에서 손잡이를 잡을 수 없는 구조로 시공되거나 손잡이가 걱정 유효폭을 지니지 않아 수평으로 별도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출입문 손잡이 방지를 추가로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방풍실이나 화장실 출입문 경계석 등 바닥마감을 화강석 물갈기로 시공한 사례는 노인이 지팡이나 이동보조장치로 바닥을 짚을 경우 미끄럽지 않도록 잔다듬이나 버너구이 마감 등으로 재시공의 필요성이 있다. 부수적으로 실명점자표지판 높이, 화장실 출입문 레버 손잡이 형태 및 높이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Table 8. Interior Facilities

Spec	Figures	
2.1.4 Hand-grip		
	no side activity space	need wide hand-grip
2.2.3 Floor finishing		
	too slippery finishing	too slippery finishing

from documents for BF design certification







4.4 위생시설

경로당의 특성상 도시 및 읍·면지역에 분포하고, 사업비 및 시공특성상 소규모 업체에 의해 1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의 특성상 전반적인 마무리 수준이 질적으로 부족하거나 세심한 치수를 요구하는 부분에서 관습적으로 시공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경로당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대변기의 손잡이 간격(대변기 중심에서 350mm), 높이(650mm) 등의 부적절, 세면대 손잡이 및 거울규격, 높이 부적절 등 위생설비의 부적절한 시공이다.

대변기의 경우 손잡이가 부적절하게 시공되거나 세정장치가 작동하지 못하는 광감지기 설치 높이 등이 주로 나타나며, 세면대의 경우 하부공간 미확보, 손잡이 높이





미준수, 상하회전식이 아닌 고정식 시공, 거울의 규격 및 높이가 미준수, 냉온수 접자표시 미부착 등 전반적으로 규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재시공이 발생하고 있다.

Table 9. Sanitation Facilities

Spec	Figures	
3.3.4 Toilet bowl handgrip		
	too wide hand-grip	different level
3.3.5 Toilet bowl etc		
	obstruct auto-flushing	improper distance
3.5.1 Wash-stand		
	obstruct access	too low for access

from documents for BF design certification

Table 10. Interior Facilities

Spec	Figures	
4.1.3 Tactile guidance strip		
	too near to obstacle	ambiguous plot-line
4.2.1 Alarming facilities		
	fire sensor	fire alarm flashing

from documents for BF design certification

4.5 안내시설

안내시설은 안내판, 점자블록,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그리고 경보 및 피난설비 등이 설치되어야 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인 경로당의 특성상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터 주출입구가 연결하거나 담장이 없이 대지경계가 모호한 경우 유도블록을 미설치하여도 접근에 어려움이 없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소규모 건축물이지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정에서 분리된 각 실에 추가로 요구되는 소방관련 설비인 시각경보기, 즉 경광설비가 미설치되어 나타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위한 가장 기초시설인 ‘경로당’의 건축계획적 특성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실태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을 취득한 경로당 건축물의 건축특성 및 재시공 및 수정보완 사항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경로당은 대부분 1층 규모로서,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거실 및 부엌, 남/녀 화장실, 기계실로 구성된 기본형식을 지니고 있다. 다만, 부지형상 및 규모는 도시형은 가구형 필지구조에 의해 정방형으로 외부공간의 여유공간이 없는 반면, 전원형은 마을 주변부지 특성상 기존 지적에 의한 부정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경로당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실태를 분석하면, 대부분 위생시설 및 매개시설에서 재시공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데, 이는 소규모 건축물 시공의 품질관리 부족과 예비인증 미비 등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소규모 건축물을 특성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을 면밀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존의 편의시설 수준의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본인증 과정에서 치수나 위치, 규격 및 성능 미흡이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셋째, 경로당은 가장 기초적인 여가복지시설로서 지역밀착형인 동시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부분 설계 및 공사 등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위해 자체평가서를 작성하고, 심사 신청 후 취득까지 약 40일이 소요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공기와 사용일정 등이 불일치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경로당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 파출소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확대하고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서 및 심사 항목을 주요항목 위주로 간략화하고, 인증심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 [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The Survey of the Elderly」, p.29, 2017.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The Survey on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p.5, 2018.
- [3]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Status and Improvement Task of Barrier Free Design Certification”, NARS Analysis of Issues Vol.2, p.7, Mar, 16, 2018.
- [4]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List of BF Certifications, [Internet] Available From : <https://bf.koddi.or.kr>,(accessed Aug, 28, 2018)
- [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ewsletter, p.2, Aug, 9, 2018.
- [6]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Newsletter, p.2, Sep, 3, 2017.
-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The Survey of the Elderly」, p.532, 2017.
- [8] J.S. Lee., E.S. Kim,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Design and Management Guidelines of Elderly Facility through Reviewing of Evacuation Behavior”,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Vol.20, No.6, pp.145-154, Jun, 2004.
- [9] Kang Nam Gu, [Internet] Available From : http://www.gangnam.go.kr/board/B_000031/1071205/view.do?mid=FM0403&pgno=10&keyfield=bdm_main_title&deptField=BDM_DEPT_ID(accessed Oct, 04, 2018)

이 정 수(Lee, Jeong Soo)

[정신회원]



- 1987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석사)
- 1992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박사)
- 1993년 3월 ~ 2002년 6월 : 호서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 2002년 6월 ~ 현재 :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축계획 및 설계

오 영 숙(Oh, Young Sook)

[정회원]



- 2002년 2월 : 호서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석사)
- 2016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수료)
- 2015년 3월 ~ 현재 :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강사

<관심분야>
건축계획 및 설계

은 동 신(Eun, Dong Shin)

[정회원]



- 2007년 2월 :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축공학과 (공학석사)
- 2014년 8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수료)
- 2006년 3월 ~ 2007년 2월 :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 2000년 6월 ~ 현재 :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관심분야>
건축계획 및 설계